

# 이낙연, 이번 주말 호남행

〈전 국무총리〉

오늘부터 2박3일간  
전남 영광·광주 방문

선친 묘소 참배 후  
5·18 묘역 참배

정치 복귀를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말 호남을 찾는다. 이 전 대표는 오는 30일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영광과 광주를 잇따라 방문한다.

고향인 영광을 먼저 찾아 선친 묘소 참배한 뒤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순서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 광주에서 머물며 가까운 지인들과 식사자리 등을 가지며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1년간 미국 체류 후 귀국한 이 전 대표의 첫 호남 일정이다. 호남은 이 전 대표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남에서 16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4선을 한 뒤 전남 도지사도 지냈다. 귀국 후 첫 지방 일정으로 호남을 택한 것을 두고 지지세력 규합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30일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영광과 광주를 잇따라 방문한다. 사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은 비공개 개인 일정이라고 하지만 정치인의 행보 중 의미없는 행보가 어디 있나"라며 "귀국하자마자 정치 복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봤다. 이낙연계 한 의원은 "1년간 외국에

나가 있었으니 돌아와 부친에게 인사부터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주말 전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전망이다. /뉴시스



새만금잼버리 부지 추진 상황 점검하는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29일 배수대책 추진이 한창인 세계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 전반을 관계자들과 직접 점검하고 있다.

## 식량위기 대응 식량안보 사항 종합 규정

민주 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갈수록 고조되는 식량 위기에 대비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량안보 특별법안'(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

이 일어난다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가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식량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항상 안정적인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

지만, 밀·콩·옥수수 등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은 44%,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밖에 안 되므로 식량안보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공급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

기울여온 노력과,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룬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지역자립력을 이끌어 나가는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지역언론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도, 국과장급·시군 부단체장 후보인사 내정자 발표

국장급, 도민안전실장 등 3명  
부단체장, 김제 부시장 등 4명

도내 시군 부단체장 4명이 교체된다. 전북도는 29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국·과장급 후보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명단 15명) 국장급 후보인사에서 운동육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민선식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성호 에너지주요산업과장은 정책기획관으로 내정됐다. 이어 과장급인사에서는 문성철 원주 부군수가 일지리민생경제과장으로, 김

에자 노인정책팀장은 승진과함께 법무행정과장으로 발령됐다. 김주영 특별자치도기획팀장은 총괄지원과장에, 이은주 건설정책팀장은 특례정책과장으로 각각 발령됐으며 이지형 농생명식품과장이 자치제도과장에, 정화영 순창부군수는 문화산업과장 자리에 앉게 된다. 시군 부단체장 후보인사에서는 김제시 부시장에 이찬준 지역정책과장이, 완주군 부군수에 조영식 생활환경과장이 내정됐으며, 송주섭 대외협력과장이 장수군 부군수, 김영식 일지리민생경제과장이 순창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긴다.

### 도, 국회 문체위 의원실 찾아 전북특별법 반영 방안 모색

전북도는 29일 국회 문체위 위원인 김윤덕 의원실과 이용호 의원실을 차례대로 방문해 전북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분야 17개 제도 개선 과제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문체위 지역국회의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제도 개선 과제의 필요성 및 논리개발 방향, 부처실득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북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분야 제도 개선 과제는 스키어이프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 스키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 △태권도 특구 지정 및 운영 특례, △관광특구 육성 특례 등 17개다. 김윤덕 의원실과 이용호 의원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라북도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은 만큼 문화·체육·관광분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반영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